[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 고려의 건국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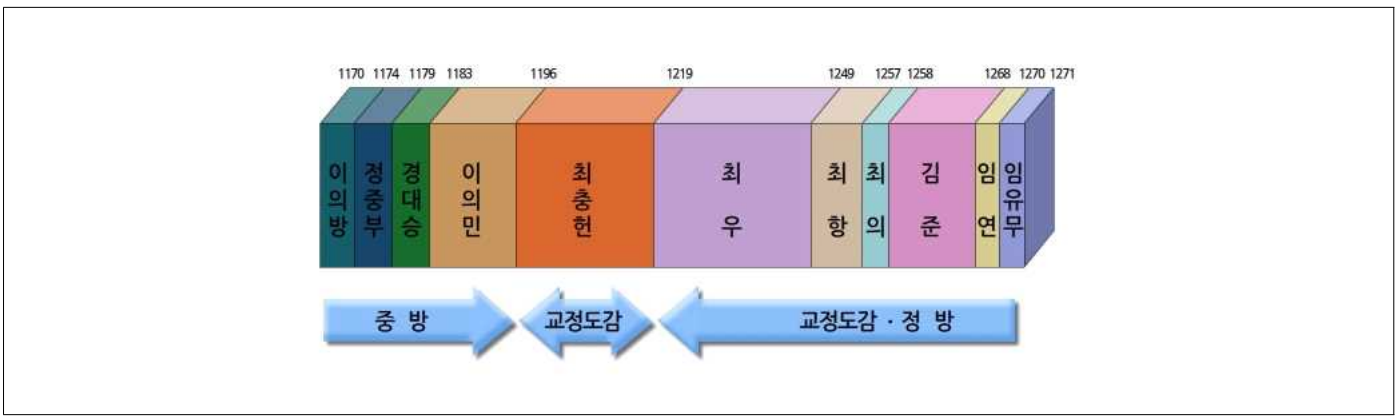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어떻게 대항했을까?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

Mongol's Aggression and Korea's Resistance

무신정권의 등장

무신정권은 1170년(명종 1년) 무신이었던 정중부의 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고려 사회는 문신 중심의 정치를 해나가며 무신들을 푸대접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을 무신정변이라 하며, 무신정변은 고려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신정변 결과 고려사회는 새로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정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무신정권은 약 백 년간 계속되었는데 무신들은 백성이나 나라 걱정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권력을 독점하여 고려사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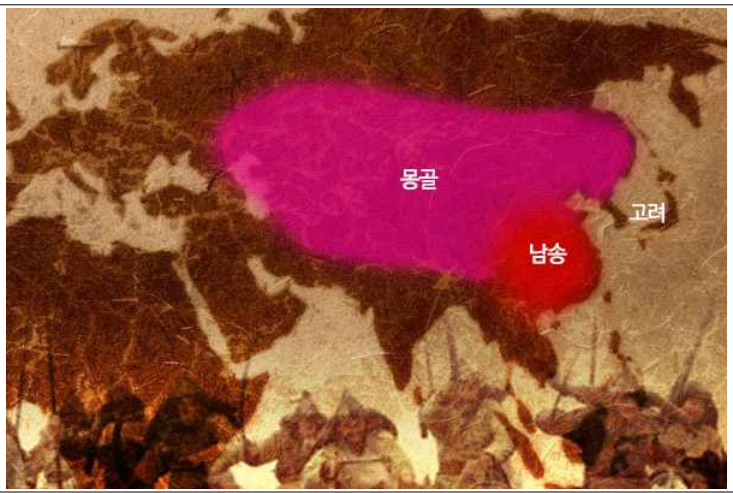


| 무신정권의 계보

약해진 고려의 국력, 몽골의 침략

몽골이 고려를 침략한 시기는 바로 고려시대 무신정권기였습니다.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몽골인들은 곧 고려 땅을 넘보며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무신정권의 우두머리였던 최우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까지 몽골의 침입에 항전했지만 결국 무신정권도 무너지고 몽골과 화친도 하게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자료입니다.
에듀넷(www.edunet.net)에 접속하면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세력

민초들과 삼별초의 항쟁

고려 집권층들은 비교적 쉽게 몽골에 항복하였지만 민중들은 달랐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지칠 줄 모르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장렬히 전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배중손을 중심으로 한 삼별초군도 몽골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며 원나라(몽골)와 끝까지 싸움을 전개하였습니다.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등 3개 부대의 총칭으로 원래 도성을 지키고 임금을 보호하는 친위대의 기능을 하였고,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후에는 강화도 수비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의 대몽 항쟁 과정에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마지막까지 몽골에 맞서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삼별초군이 이처럼 마지막까지 대몽 항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민중들의 지지와 투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고려는 몽골의 침입을 받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삼별초의 항쟁

원나라의 부마국이 된 고려, '몽골풍'의 등장

삼별초군이 완전히 평정된 후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어 화친을 맺게 됩니다. 부마국이란 사위의 나라가 된다는 뜻으로 고려의 왕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려는 과거 황제의 나라에서 이제는 신하의 나라(제후국)가 되어 각 벼슬의 이름이 낮추어지게 됩니다. 왕의 이름에 '충성 충(忠)' 자를 넣어 충렬왕, 충혜왕, 충정왕과 같이 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원나라의 문물이나 풍습이 고려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이를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몽골풍은 주로 고려의 상류사회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몽골어, 몽골식 이름, 몽골식 복장, 변발 등이 있습니다. 상류층의 지배 계층 사람들이 앞장서서 몽골풍을 따랐다는 사실은 창피한 일이었지요. 또한 두루마기를 입는 것, 설렁탕, 만두, 소주 등의 음식, 결혼을 하는 신부가 얼굴에 연지, 곤지를 찍고 머리에 족두리를 하는 것도 몽골에서 건너온 풍속입니다.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몽골식 의복과 변발</td>
<td>연지곤지</td>
<td>족두리</td>
</tr>
</table>

| 다양한 몽골풍

이 외에도 몽골에서 공녀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들을 원으로 끌고 가곤 했기 때문에 고려에는 일찍 결혼을 시키는 조혼의 풍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 원나라로 끌려가던 처녀들, '공녀'

* 본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자료입니다.
에듀넷(www.edunet.net)에 접속하면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14세기 중반까지 원의 정치적 관리 아래에서 지내게 됩니다. 백성들의 안전이나 나라의 안정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았던 무신 정권과, 나라를 위해 애쓰다가 죽어간 삼별초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탐구 과제	삼별초는 왜 강화도, 진도, 제주도 등 해안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는지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몽골풍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 단원	초등학교 5~6학년군 -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용어 정리

1. **문신** : 문관(文官)인 신하
2. **무신** : 무관(武官)인 신하
3. **항전** : 적에 대항하여 싸움
4. **화친**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5. **총칭** : 전부를 한데 모아 두루 일컬음
6. **변발** : 몽골 인이나 만주인의 풍습으로, 남자의 머리를 뒷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깎아 뒤로 길게 땋아 늘인 모양